

# 눈 충혈되고 가려운 알레르기 결막염, 방치땀 시력 저하



## 건강 바로 알기 봄철 알레르기결막염

### 고재용

조선대병원 안과 교수

따뜻한 날씨와 함께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시작과 생명력이 넘치는 봄, 이 계절이 되면 눈이 가려워서 몹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결막염 때문이다. 이 질환은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염증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약화가 가능하며 제때 치료가 필요하다. 결막염 중 대표적인 계절 알레르기결막염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 본다.

◇알레르기결막염의 종류=우리 눈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이 결막에 닿았을 때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대부분은 흰 눈동자라고 알고 있는 결막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환자들 대부분이 눈이 가렵거나 갑작스러운 충혈, 눈곱 등이 생기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알레르기결막염의 종류에는 계절알레르기결막염, 아토피 피부염과 자주 동반되는 아토피알레르기결막염, 주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봄철각결막염, 거대유두결막염 그리고 접촉피부결막염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계절알레르기결막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알레르기비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봄

황사·미세먼지·꽃가루 등 다양한 원인 10대 자주 발생...알레르기 비염과 동반 환경·체질·유전적 요인 따라 치료 달라 보존적 치료 우선...심할 땀 약물사용

철각결막염과 아토피각결막염은 각막을 침범해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중 봄철각결막염은 봄, 여름철 10대 소아에서 자주 발생하고 아토피각결막염은 계절과 나이에 관계없이 눈 주변부의 피부염이나 아토피피부염과 동반돼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계절성이나 통년성알레르기결막염은 시력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적지만 자주 발생하고 만성적이다.

◇발병 원인=계절알레르기결막염은 주로 공기 중의 꽃가루나 풀 등에 대한 알레르기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에게서 잘 발생한다. 보통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항원이 결막에 닿게 되면 자극을 받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눈분만 아니라 코나 인후에도 염증을 발생시키게 된다.

알레르기결막염의 주요 증상은 심한 가려움, 이물감, 끈적끈적한 점액성 분비물, 눈부심, 눈물흘림, 결막 충혈 등이 있다. 기후 변화나 활동 여부에 따라 심해지거나 좋아지기도 하지만 영구적인 시력 상실은 일으키지 않는다. 이러한 증상은 비대칭적일 수 있으나 대개 전형적으로 양안에서 나타난다.

◇진단과 치료=알레르기결막염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아토피 가족력을 포함한 병력 청취와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고, 같은 알레르기 항원이 비염과 천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코와 호흡기의 증상에 관해 물어보면 도움이 된다. 또한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피부단자검사와 같은 전신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계절알레르기결막염은 환경이나, 체질, 유전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이다. 사람마다 알레르기 반응의 정도와 예상되는 지속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가 우선된다. 유발요인인 알레르기 항원을 피하는 것이 이상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다.

봄에는 나무나 꽃가루와 같은 다양한 공기 매개 항원이 있어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가 심할 경우 의식을 삼가고, 꽃가루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 놓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야외활동 이후에는 손을 씻고 샤워를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확한 알레르기원인 항원을 찾기 어려워



고재용 교수



고재용 교수가 결막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대부분은 알레르기 약물을 사용하며 증상치료를 하게 된다. 약제를 선택할 때는 심한 정도, 증상,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에 예상되는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알레르기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처음에는 염증 조절 효과가 강하고 빠른 '국소 스테로이드'가 효과적일 수 있는 반면, 증상이 중증도거나 오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비만세포를 안정시켜 근본적으로 염증매개물질의 분비를 막는 '비만세포안정제', 염증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 작용을 막는 '항히스타민제' 혹은 항히스타민과 비만

세포안정제가 복합된 약물로 치료해야 한다. 이외에도 결막부종과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한 '혈관수축 점안제' 등을 사용해볼 수 있다.

따뜻한 봄날, 피어나는 꽃구경으로 야외활동이 잦은 요즘과 같은 때 알레르기 결막염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중요한 것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며 잦은 외출 삼가와 함께 외출 후 손과 의복의 위생에 신경 쓰고, 증상이 발현될 경우 즉시 가까운 병원의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병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추진...인도주의 실현 기여

### 힐링과테말라-전남대의대 업무협약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은 최근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중역회의실에서 힐링과테말라, 전남대 의과대학과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영근(가운데) 병원장, 힐링과테말라 이문택(오른쪽) 대표, 전남대의과대학 정영도 학장 등 세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의료안정망을 강화하고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로 했다.

힐링과테말라는 전남대 의과대학 동문(1997년 졸업)이자 과테말라에서 의료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이문택 대표가 설립한 비영리기관이다. 이 대표는 한국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활동하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과테말라로 갔으며 지난 2014년 과테말라 케찰테낭고 지역에 '클리닉 베데스다' 병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과 전남대 의과대학은 의료 장비와 교육지원, 해외의료봉사 활동 등 다양한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문택 대표는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25년이 넘었는데 흔쾌히 대학과 병원에서 지원을 약속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며 "과테말라 수도에서 5시간 떨어진 산악지역에 위치한 곳인 만큼 의료혜택 받기가 매우 어렵다. 양 기관의 도움도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의료선교를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활동하시는 동문이 존경스러울 따름"이라며 "의료는 인간다운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만큼 인도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병원, 개원 52주년...새 병원 비전 선포

조선대병원이 스마트 의료를 선도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세계로 도약하는 새병원 추진의 비전을 선포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14일 해오름관에서 '개원 52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선대병원은 개원 52주년 기념식과 함께 새로운 비전(NEW VISION)을 선포했으며, 뉴비전과 함께 슬로건-미션-핵심가치를 공개했다.

비전선포식에서는 '생명존중의 첨단 의료로 인류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라는 미션과 '새로운 도약! 스마트 의료를 선도하는 조선대학교병원'이라는 슬로건이 발표됐다. 비전으로는 ▲첨단 의료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새 병원 ▲창의적인 연구와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새병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새병원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새병원 등이 제시됐으며, 핵심가치로는 스마트 의료, 선도하는 연구와 교육, 끊임없는 도전, 사회 공헌 등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새로운 미션-비전은 전 직원 대상 공모전과 관리자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오는 2028년 새병원 준공을 앞두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로봇 등을 기반으로 한 최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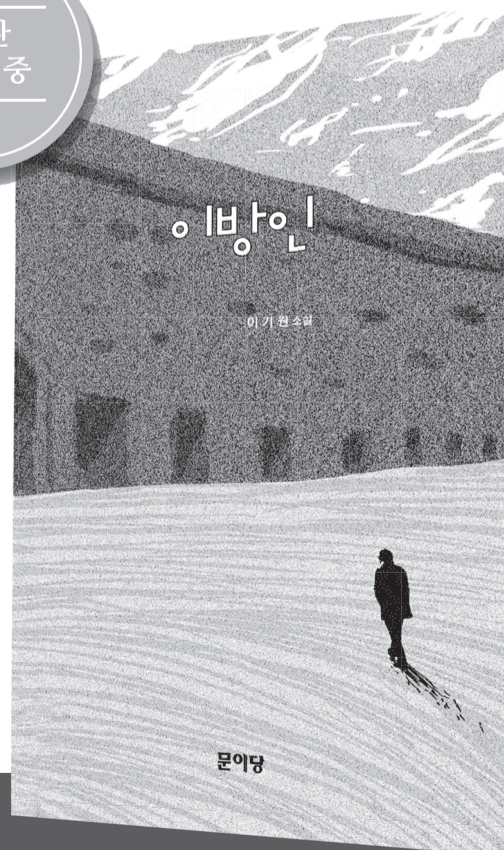
새병원 조감도

단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김경중 조선대병원장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인식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개원 52주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터닝포인트'로 삼고자 한다"며 "더 큰 미래, 더 멋진 조선대병원을 향해 힘차게 전진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병원 신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절판 판매중



문이당 | 15,000원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